KBL, 오늘 오전 긴급이사회…GO? STOP? 어떤 결정 내릴지 주목

사상 초유 리그 중단…해법 찾기 '산 넘어 산'

확진자 계속 나와 리그 재개 불투명
리그 축소·종료땐 위약금 등 큰 부담
선수 건강 관리·외인선수 이탈 변수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으로 무관중으로 진행되던 KBL 리그가 KCC 선수단이 확진자와 같은 호텔에 머문 사실이 알려진 뒤 잠정적인 리그 중단을 선언했다. 2일 긴급 이사회가 예정된 가운데 이 자리에서 완전한 리그중단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2월 27일 관중 없이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서울 SK-부산 KT전 모습. 잠실 | 주현희 기자 teth1147@donga.com

남자프로농구를 관장하는 KBL은 2월 29일 '2019~2020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정규리그 중단을 발표했다. 전주 KCC 선수단이 같은 날 전주체육관에서 열린 부산 KT와의 홈경기를 위해 전주 시내의 한 호텔에서 1박2일을 체류했고, 같은 호텔에서 머문 한 시민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로 밝혀졌다. 이런 내용을 KCC가 KBL에 알리자 KBL은 리그 잠정 중단을 결정했다. KBL은 2일 오전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 후속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리그가 일시 중단된 만큼 이사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리그 재개 여부를 포함해 리그 축소, 리그 조기 종료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놓고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 시점에서는 리그 재개 자체를 논의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KCC 사례처럼 선수들이 경기를 위해 호텔 등 외부에서 단체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증가해 무관중이라도 정상적인 리그 진행이 쉽지 않은 현실과 마주했다.

리그 축소나 조기 종료를 선언하기에게도 부담은 있다. 현 시점에서 리그를 종료하면 최종적으로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 일부 선수들에 대한 계약 관리 등에 대한 검토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리그 공식 후원사, 각 구단이 별도로 유치한 스폰서 등 KBL과 각 구단이 지불해야 하는 위약금도 산정해봐야 한다. 리그 축소 또한 리그 종료 결정시 못지않게 고려해야 할 사안들이 많다. 2일 이사회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총체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선수단 관리도 문제다. 10개 구단들은 경기 일정이 취소되자 휴식에 돌입했다. 확진자와 같은 호텔에서 머문 KCC만 숙소에서 선수들을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을 뿐이다. 타 구단 선수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스스로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내 선수들의 건강관리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선수들의 행보도 주시해야 한다. 무관중 경기가 결정된 이후 부산 KT 2명, 고양 오리온 1명 등 3명의 외국인선수가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내세워 팀과 계약을 해지한 뒤 이미 한국을 떠났다. 리그가 잠정 중단됐기 때문에 한국을 떠나려 하는 외국인 선수들이 더 나올 수 있다. 구단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더라도 조금 더 안전한 모국으로 가서 코로나19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선수들이 이미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각 구단의 선수단 관리 또한 만만치 않은 현실이다.

한편 원주 DB의 외국인선수 치나누 오누아쿠와 칼렙 그린도 곧 국내를 떠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손흥민도 영국 복귀땐 증상 없어도 자가격리

코로나19 확산…토트넘 입장 변화



손흥민

팔 수술을 위해 한국을 찾았던 손흥민(28·토트넘 홋스퍼)도 코로나19 여파를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데일리 메일과 미러 등 영국 매체들은 2월 29일(한국시간) "손흥민이 영국에 오면 2주 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영국 정부는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진 않고 있으나 한국인 입국자들에 대해 자가 격리를 의무화하는 등 절차를 강화했다.

당초 토트넘은 손흥민이 입국 후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이 없으면 격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상황이 바뀌었다. 토트넘의 조제 무리뉴 감독(포르투갈)도 "정부 지침이 있다면 당연히 따라야 한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손흥민이 와도 곧장 팀에 합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손흥민은 지난달 16일 애스턴 빌라와의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오른팔 전완골부 요골이 골절됐고, 19일 귀국해 21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금속판과 나사못을 이용한 골절부 접합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타격은 또 있다. 토트넘은 여름 프리시즌을 이용해 7월 방한 경기를 포함한 아시아 투어를 추진했지만 스케줄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지난해 중국·싱가포르를 방문한 토트넘은 2년 연속 '손흥민 마케팅'을 내세워 아시아를 찾으려 했으나 무리뉴 감독은 "선수단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며 우려의 뜻을 표했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1일 오전(한국시간) 제70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폐막식에서 영화 '도망친 여자'로 은곰상 감독상을 받은 홍상수 감독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 | 화인컷

베를린 국제영화제 감독상…유럽이 인정한 홍상수

함께 만든 '도망친 여자'로 두 번째 은곰상
수상자로 호명되자 연인 김민희와 포옹
'기생충'은 세자르상…한국영화계 겹경사

홍상수 감독이 '뮤즈' 김민희와 7번째 합작한 영화 '도망친 여자'로 베를린 국제영화제 은곰상인 감독상을 수상했다. 2017년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를 통해 김민희가 은곰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이후 3년 만이다.

1일 오전 3시(이하 한국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70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폐막식에서 홍상수 감독은 감독상 수상자로 호명되자 김민희와 뜨겁게 포옹했다. 그는 "함께 한 모든 스태프와 영화제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한 뒤 "이 자리의 여배우들에게도 박수를 보내고 싶다"며 객석으로 눈길을 보냈다. 박수가 쏟아지자 김민희와 또 다른 주연배우 서영화가 자리에서 일어나 화답했다.

홍 감독과 김민희는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로 처음 만난 뒤 연인이 됐다. 2017년 3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 국내 시사회에서 "사랑하는 사이"라고 이를 공개했다. 이후 꾸준히 영화 작업을 하는 한편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아왔다. 다만 해외 영화제에는 동행해왔다. 이번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도 커플링을 낀 손을 맞잡고 레드카펫을 밟기도 했다.

홍 감독은 2008년 '낮과 밤'을 시작으로 2013년 '누구의 딸도 아닌 해원' 등을 거쳐 '도망친 여자'까지 베를린 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4편을 출품했다. 그 가운데 김민희와 함께한 두 편으로 연이어 은곰상을 수상, 이들의 작품세계가 유럽 영화계와 평단의 지지를 받고 있음을 증명해냈다.



은곰상 트로피를 손에 쥔 홍상수 감독과 '도망친 여자'의 주연 김민희, 서영화.(왼쪽부터) 사진제공 | 화인컷

특별한 시나리오 없이 일상에서 포착한 삶의 순간을 영화로 담는 홍 감독의 스타일대로 최근작 역시 실제 두 사람의 상황을 빗댄 듯한 이야기로 시선을 끈다. '도망친 여자'는 남편의 출장으로 결혼 뒤 처음 떨어지게 된 주인공이 세 명의 친구를 만나면서 겪는 이야기다. 베를린 국제영화제는 "많은 부분이 드러나지 않지만 무한한 수의 세계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암시한다"며 시상 이유를 밝혔다.

한편 '기생충' 역시 역사를 계속 써가고 있다. '기생충'은 2월2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45회 세자르상에서 한국영화 최초로 외국어영화상을 받았다. 지난해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에 이어 '프랑스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세자르상까지 품에 안았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제 13기
행복공감 봉사단
모집합니다.

동행복권



- 모집기간: 2020년 2월 12일(수) ~ 3월 6일(금)
- 모집대상: 만 19세 이상 누구나
- 신청방법: 구글 설문지 작성 (동행복권 홈페이지 팝업 클릭!)
  www.dhlottery.co.kr
- 결과발표: 2020년 3월 9일(월) 개별 SMS 및 카페 공지

Lotto 6/45 900 회 당첨번호 (추첨일 : 2020년 02월29일)

1등 당첨번호						2등 보너스 번호
7	13	16	18	35	38	14

1등 총 당첨금 ₩2,0,0,0,9,9,1,0,8,2,5,0

*1등 총 당첨금은 1등에 당첨된 총 당첨게임 기준이며, 당첨 게임수가 복수인 경우 균등 배분됩니다. 총 당첨금은 총 판매액의 50% 이상입니다.

등위	당첨게임 수		당첨금(원)	당첨금 내역
1등	6개 숫자일치	6	3,349,851,375 원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75%
2등	5개 숫자일치 + 2등 보너스일치	51	65,683,361 원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3등	5개 숫자일치	2,385	1,404,550 원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4등	4개 숫자일치	113,132	50,000 원	50,000원
5등	3개 숫자일치	1,872,855	5,000 원	5,000원

*상기 당첨금은 1게임당 당첨금액 기준입니다. (세금 공제 전)

· 동행복권 콜센터 : 지역없이 1588-6450 · 인터넷 당첨번호 안내 : www.dhlottery.co.kr
당첨금 지급기간 : 해당 회차 지급개시일로 부터 1년까지

복권 구입시 유의사항 · 복권은 1인당 1회 10만원까지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은 복권을 구매하거나 당첨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 지나친 복권 구매는 중독의 폐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동행클린센터 080-800-0501 www.clean.dhlottery.co.kr

2020 서울국제마라톤 취소…참가신청 4만여 명에 참가비 전액 환불

동아일보사는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이달 22일(일) 열릴 예정이던 2020 서울국제마라톤대회를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참가 신청을 한 4만여 명의 참가자에게는 참가비를 전액 환불해 주기로 했다. 동아일보사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 상황을 보아 국제엘리트 부문을 제외한 일반 마스터스대회 부문 등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02-361-1410 ▲이메일: marathon@donga.com